

어느 회사이든 그 회사를 대표할 만한 핵심부서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여러 부서 중에서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을까마는, 앞으로 협회의 대표 사업이 될 검인증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하게 하는 검인증팀이야말로 타사가 공인하는 핵심부서가 아닐까. 말 그대로 협회의 '짱'이 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검인증팀을 만나보자.

협회의 진정한 '짱', 검인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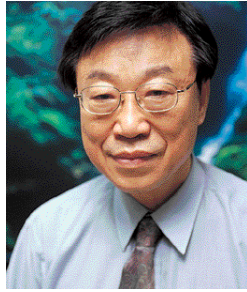
글 윤종환 · 사진 현명진



협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게 될 핵심부서 검인증팀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 7월의 중순, 협회 회의실에서 검인증팀을 만났다. 검인증팀의 팀원은 모두 4명으로 팀장을 맡고 있는 조순열 부장과 장동혁 사원, 그리고 백병춘, 최보성 두 분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개발부로 시작하여 조순열 부장과 장동혁 사원이 기초 작업을 한 후에 2003년도에 백병춘 전문위원이 들어오면서 규격 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입안 작업이 시작되었고, 2004년 최보성 전문위원의 합류와 함께 규격 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두 전문위원의 경우 협회에 들어오기 전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각각 기계 금속과 화학 분야의 국가표준(KS)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오신 분들이다.

검인증팀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용 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규격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이다. 즉,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명과 강도를 지녀야 하는지 그 품질 특성치를 정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관리해나가는 업무이다. 본격적인 인증업무에 앞서 현재까지는 각종 자재들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단계로, 올해에 11개 제품의 규격이 개발되어 인터넷에 공지가 되어있고 앞으로 80여종 규격이 새로 제정되는 일이 남아있다. 기준을 마련하고 규격을 제정하고 나면 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 현장이 바뀌어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실험을 하는 기관들이 생겨야 한다. 이런 준비 기간들 때문에 규격 제정 후 약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인증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검인증팀은 협회 내에서 당연히 핵심 부서이고, 향후 협회의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부서라고 강조하는 조순열 부장은 점차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질 업무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인증사업이 시작되면 현재의 이런 조직구성으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규격이 제대로 목표한 대로 개발이 되고 그 규격을 적용해서 본격적인 인증사업이 시작되면 내년도에 시범 인증사업을 거쳐 내후년 상반기부터는 조직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국가의 기간산업과 국민건강에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

우리나라의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에 제대로 된 자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이 바로 협회 차원의 단체 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자, 검인증팀 팀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이기도 하다.

“공업용으로 쓰는 자체의 경우 국가 규격이 KS로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들어가는 먹는 물에 해당되는 약품은 중금속이나 불순물 등이 더 까다롭게 규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규격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수돗물에 한해서 협회가 국가 규격 이상의 엄격한 단체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보급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보성 전문위원의 말이다.

또한 검인증팀은 제품의 소재에 대한 규격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도 함께 작성하는데, 이러한 업무가 국가의 기간산업인 상하수도 산업에서 나쁜 자체를 쓰거나 시공이 불량하거나 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국가적인 손실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밖에도 기존 자체를 외국의 기준들과 비교했을 때 동등 이상의 기준을 유지시켜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자 보람이다.

단체 규격을 제정하는 일은 매우 전문적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때론 관련 업체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어려움이 클수록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검인증팀이 생각하는 ‘長’ 과 짱

검인증팀은 팀이 협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 뿐 아니라 팀 구성원의 면모를 하나하나 살펴봐도 과연 ‘짱’이라는 말이 제대로 어울린다.

우선 두 전문위원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표준의 기본을 정착시킨 분들로, 마지막 봉사 차원에서 협회의 자체 규격 제정 업무를 보고 있다. 30년 넘게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 소위 ‘오長’의 자리와 책임을 이미 경험한 두 전문위원에게 부서 내의 직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듯 했다.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일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이 나이에 직위를 따지면 무엇 하겠는가’라는 최보성 전문위원의 말이나 ‘나이는 많아도 마음은 항상 젊어서 팀원들과 같이 호흡한다’는 백병춘 전문위원의 말을 들으니, 중요한 것은 늘 하던 대로 본인이 가진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일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동혁 사원은 팀에서는 가장 젊지만 협회 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본 업무인 검인증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협회 내부의 여러 가지 일을 잘 챙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따르는, 한 마디로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다. ‘진정한 리더의 조건은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팀은 물론 협회의 미래를 이끌 힘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팀원들에게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때론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팀장 조순열 부장이 있다. 그는 ‘長이 가져야 할 덕목은 주위 사람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검인증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무한히 넓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춘 검인증팀의 힘찬 미래를 기대해본다.